

운보 김기창 화백이 쌀 디자이너?

운보 김기창 화백은 누구인가?

운보는 한국이 낳은 위대한 화가이기 이전에 일제시기부터 현재까지 무려 세 차례나 쌀을 도안한 쌀 디자이너이다. <바보산수(山水)>로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1만 원권 지폐의 세종대왕을 그린 화가 운보는 누구인가?

운보(雲浦) 김기창(金基昶; 1914~2001)은 서울 종로구 운니동(雲泥洞)에서 1914년(호적은 1913년)에 태어나서 8살에 인사동에 있는 승동(勝洞)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첫날 열린 대운동회에서 장티푸스에 걸려 후천적인 청각장애인이 되었다. 이후 1930년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당화숙(以堂畫塾)에서 김은호(金殷鎬) 화백에게 정식으로 그림수업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다음 해인 1931년 무려 18세의 나이로 제10회 선전(鮮展;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판상도무(板上跳舞)¹⁾>로 입선, 이후 연속 5회의 입선과 4회의 특선을 기록하였다.

1945년에 여성화가인 우향(雨鄉) 박래현(朴來賢; 1920~1976)과 결혼하고, 이후 부부는 한국의 대표적인 부부화가로 거듭나게 된다. 도쿄 여자 미술전문학교에 유학하였



[그림1] 판상도무(운보 최초의 작품작)



[그림2] 노년의 운보 김기창 화백

던 우향은 가난하고 학벌도 없는 데다 청각장애자인 운보와 예술가의 동지적 사랑으로 결혼한 후 운보의 삶과 예술적 성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운보는 1956년 국전 초대작가를 거쳐 이후 심사위원과 각 대학에 출강하였으며, 백양회(白陽會)²⁾의 중심 인물로 활약하는 동시에 수많은 국내외전을 개최하였다.

운보의 예술을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면, 초기의 구상미술 시기, 예수의 일생을 한국인의 모습으로 그린 종교화시기, 구상에서 추상으로 바뀌는 연작시기, 청색과 녹색이 뒤섞인 청록산수와 민화풍의 바보산수 시기, 그리고 노년의 추상미술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운보는 산수·인물·화조 등 모든 영역에 능통하고, 구상과 추상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였으며, 활달하고 힘찬 붓놀림과 호방하고 역동적인 화풍으로 한국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한국의 위대한 예술가였다.

1976년 부인 우향이 57세로 일찍 타계하자 이후 1979년 충북 청원군에 전통 한옥으로 운보의 집을 착공하여 1984년 완공하였다. 현재 KBS 2 TV의 인기 드라마인 “제빵왕 김탁구”에서 탁구엄마의 집으로 설정되어 나오는 곳이 바로 운보의 집인데, 운보는 2001년 작고할 때까지 사저에 기거하면서 예술활동을 하였다. 작고 후에는 운보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보의 집과 운보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고 후 운보의 집 뒷동산에 부인과 함께 안장되었다.

1937년의 싹 도안

운보의 싹 도안 참여 | 운보가 셔우드 홀(Sherwood Hall) 박사와 어떠한 과정으로 만나 크리스마스 싹을 도안하게 되었는지는 몇 가지 자료에서 추정할 수 있다. 박사의 영문 자서전 451쪽에서는 “또 다른 2개의 도안은 20대 후반의 젊은 조선 화가인 김기창이 디자인했으며 그는 네 살 때(필자 주 : 사실은 8살 때임) 귀가 먹고 말도 못하게 되었다. 그 당시 김은호, 백윤문 같은 조선의 예술가 문하에서 그림을 공부하였다”고

1) 판상도무는 편위에서 뛰어 춤을 춘다는 뜻으로 널뛰기를 의미하며 비단에 채색화로 크기는 33×25cm이다.

2) 1957년 친목도모와 작품연구를 위해 중견 동양화가들이 창설한 재야 성격의 모임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신인공모전은 1977년 11회를 끝으로 중단하였고, 회원전도 1978년 27회로 막을 내렸다.



[그림 3] 1937년의 쌀 연하장
(94×130mm)



[그림 4] 1937년의 쌀 포스터
(365×690mm)

회고하고 있다. 또한 홀 박사가 1937년 만든 영문 목판화 설명서에는 “미술계에서 명성이 있는 젊은 예술가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1937년 쌀 도안을 의뢰한 24세의 김기창을 소개하게 되어 즐겁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 운보는 1931년부터 선전에서 연이어 6번이나 입선하고 1937년에는 특선까지 한 24살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화가였으므로 홀 박사가 자연스럽게 쌀 도안을 부탁하였고, 운보 또한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기에 불우한 결핵환자를 위한 쌀 제작에 흔쾌히 동참했으리라고 추정된다.

1937년의 쌀 도안 | 24세의 청년 운보가 1937년 생애 첫 번째 도안한 쌀은 <팽이치는 소년>으로, 운보는 서울 출생임에도 쌀 도안은 겨울에 얼어붙은 평양 대동강 위에서 팽이치는 장면으로 도안에는 대동문(大同門)⁹이 그려져 있다. <팽이치는 소년>의 경우 홀 박사는 쌀과 쌀책(Booklet) 이외에 쌀 엽서, 쌀 연하장, 쌀 포스터, 쌀 편지봉투 등 다양한 품목을 제작하였다. 쌀 엽서는 소형도안과 대형도안이 있으며 연도 표기 유무에 따라 총 네 종류가 존재하며(판매가 2매 5전), 쌀 연하장은 목판화로 제작(판매가 30전)된 대단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림이다. 홀 박사는 자서전에서 일본의 사또(佐藤)가 판각하여 인쇄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목판화의 우하단에는 운보의 낙관과 ‘김기창’으로 서명이 되어 있다. 쌀 포스터는 한글 설명서가 있는 대형포스터와 설명문이 없이 그림만 있는 소형포스터의 2종류이다. 목판화의 경우는 지금도 입수가 가능하나 쌀 포스터의 경우는 입수가 매우 어려우며 현품을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서울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이벤트 홀에서 2010년 8월 16일부터 2010년 9월 13일까지 열린 「한국포스터 디자인 100년 전에 운보의 1937년 대형 쌀 포스터가 출품되어 전시된 바 있다.



[그림 5] 1938년의 쌀 연하장
(94×13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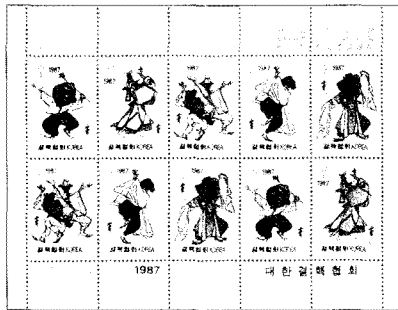
[그림 6] 1938년의 쌀 엽서
(85×139mm)

1938년의 쌀 도안

1938년의 쌀 도안 | 연이어서 1938년에도 홀 박사는 운보에게 쌀 도안을 부탁하였으며, 이렇게 제작된 것이 <제기차기>이다. 홀 박사는 쌀 도안에 항상 민속적인 그림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당시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도안이었다. 1938년 쌀의 경우도 전년도와 같이 쌀과 쌀찜, 쌀 엽서, 쌀 연하장, 쌀 포스터, 쌀 편지봉투를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1938년 쌀 엽서의 경우는 도안만 있는 대형엽서와 설명문이 있는 소형엽서의 2종이며, 연하장용 목판화도 매우 아름다운 색상의 그림으로 좌측 하단에 운보의 낙관과 서명이 들어 있다. 쌀 포스터는 하세가와(Stephen Hasegawa) 카다록에 미 발견(Unknown)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작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다. 홀 박사가 일제시기에 발행한 쌀찜은 대부분 50매의 쌀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히하게 1938년은 50매의 쌀찜과 25매의 쌀찜 2종류를 발행하였다.

당시 50매 쌀찜의 판매가격은 1원(미화 50cent)으로 쌀 1매당 2전으로 쌀찜을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판매량 증대를 위하여 판매가 50전용 25매 쌀찜을 별도로 제작하여 발매하였다. 50매 쌀찜은 Pane(5× 2=10매)이 5장 내장되어 있으며, 25매 쌀찜은 Pane(4× 2=8매)이 4장 내장되어 있으나 마지막 Pane은 쌀 1매와 한 반도 지도가 표시된 Tab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50매 쌀찜은 구입이 용이하나 25매 쌀찜은 매우 희귀하여 입수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3) 고구려 평양성 내성(內城)의 동문(東門)으로 반원형의 무지개문을 낸 축대와 그 위에 세운 팔작지붕의 2층 누각을 갖춘 성문으로 병자호란 때 소실되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 보수를 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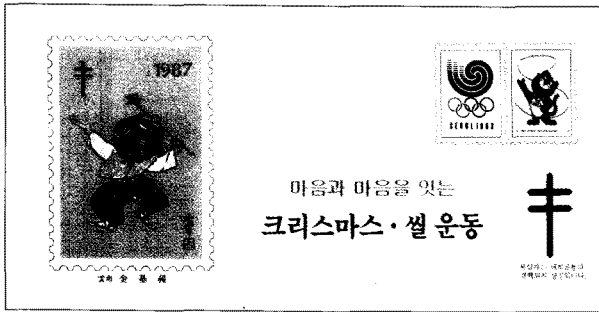


[그림 7] 1987년의 쌀 소형시트

운보의 기념전작 도록 | 운보가 팔순을 앞둔 1992년에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운보의 전작 수천 점을 국내 최초로 수록하는 「운보 팔순 기념전작 도록」 계획을 발표하고 신문지상에 소장자들의 작품촬영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국내 쌀 수집가인 서원석 님이 당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도록발간위원회를 방문하고 운보가 도안한 쌀 전지, 연하장(목판화), 쌀 엽서 등을 보여주고 설명하자 담당자들이 놀라면서 운보가 이러한 것도 그렸느냐 하면서 열심히 촬영하였다. 그러나 정작 도록이 발간되지 엉뚱하게 1934년과 1936년의 쌀(이는 엘리자베스 키스여사의 작품이다)을 운보작품으로 도록에 수록하였다. 이에 서원석 님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자신의 쌀 자료집에서 개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알다시피 국내의 유명한 미술가들도 운보가 쌀을 도안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쌀 수집가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87년의 쌀 도안

운보가 약관 20대인 1937년과 1938년에 쌀을 도안한 이후 무려 50여 년 후인 1987년, 74세 때 또 한번 쌀을 도안하여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운보의 1987년 도안은 탈춤을 주제로 한 5종으로 1930년대 청년시기의 화풍인 구상화와는 매우 다른 화풍의 도안이다. 운보의 1980년대는 바보산수를 다양하게 진전시켜 가면서 파격적 이미지를 단순화시키거나 현대적인 이미지를 그리면서 민화적 성격의 모티브를 가지고 풍속이나 산수를 재창조한 시기이다. 이러한 화풍을 염두에 두고 1987년 쌀 도안을 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보며 각 쌀마다 운보의 낙관과 서명이 표시되어 있다. 당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1년 앞둔 시기에 모든 국민이 올림픽의 열기에 차 있던 시기로, 50



[그림 8] 1987년의 썰 폴더

매의 썰 전지는 운보의 썰 도안 5종을 가지고 48매의 썰을 구성하고 전지 가운데 2매는 88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와 엠블럼을 삽입하여 전지를 제작하였다. 썰 구성은 당시 한국조폐공사 도안실에 근무하던 오동환 님이 했다는데, 오동환 님은 당시까지 썰 도안을 네 차례(1970, 1977, 1982, 1983년)나 도안한 전문 디자이너이다.

출 박사는 일제시기에도 썰 외에 다양한 품목을 발행하여 썰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 하였으나, 협회 발행의 경우 썰 이외의 다른 품목은 거의 발행하지 않아 썰 수집가로 서 아쉬운 부분이다. 1987년의 경우 썰 이외 품목으로는 썰 소형시트가 유일하며, 그 외 썰 폴더(Folder; 썰을 담아서 증정하는데 사용하는 봉투)가 있으며, 폴더의 도안은 썰 1매와 88올림픽 상징을 배치하여 제작하였다. 썰 폴더는 썰 수집가라면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대상품목이며 연도별로 대부분 발행(1957~1964년/1979년~현재)되었음에도 지난 년도의 폴더 수집은 대단히 어려워 완질로 수집하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Stethoscope in ASIA : KOREA (Sherwood Hall) 1981년
- 크리스마스 썰 야화(이창성) 보건세계
- 운보문화재단 인터넷 자료(www.woonbo.kr)
- 한국의 크리스마스 썰 (서원석자료집)
- Dr. Sherwood Hall's X-MAS & new year seals of Korea (Stephen J. Hasegawa) 2006년



이 글을 쓴 남상욱님은 썰 수집가로 서초우취회 부회장 및 우리협회 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